

탑의 진화

⑩ 미얀마의 불탑(3) 바간의 불탑

지난 호에 이어서 미얀마의 바간에 있는 수많은 불탑 중 건탑의 의미와 조형성이 뛰어난 몇 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쉐산도 불탑

'황금의 부처님 머리카락'이라는 뜻의 쉐산도(ShweSanDaw)불탑(사진1)은 바간 왕조의 초기인 아노라타 왕(Anawrahta, 1044~1077)이 조성하였다. 이 불탑은 바간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출과 일몰의 장관을 체험하기 위하여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는 불탑이며, 마치 불국사 삼층석탑이 우리나라에서 석탑의 조형적 기준이 되었듯이 미얀마 불탑의 전형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호의 양곤에 있는 쉐다곤 불탑에서 알아본 듯이 부처님께서는 공양 받은 두 상인에게 여덟 가락의 머리카락을 주었다. 두 상인은 자신의 고향인 양곤의 쉐다곤에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봉안하였다. 그 후에 쉐의 두타바웅 왕은 탑을 훼손하고 머리카락 4개를 꺼내어 자신의 고향인 타에기티아에 불탑을 조성하여 봉안하였다. 세월이 흘러 타에기티아가 멸망하자 바간의 왕은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꺼내어 3개는 각각의 불탑에 봉안하고 1개는 바간의 왕들이 쉽게 친견할 수 있도록 보석함에 보관하여 이후 바간 왕가의 보물로 이어갔다.

이 보물은 크메르의 침공을 막아준 아노라타 왕에게 선물로 전해져 아노라타 왕은 쉐산도 탑을 조성하고 그 머리카락을 봉안하게 되었다. 이처럼 부처님의 머리카락 한 개를 봉안하기 위하여 여여곡절을 겪는 것은 오직 불탑을 조성하고 예경하여 얻는 공덕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특히, 원시종교에서는 숭배의 대상으로 죽은 자의 유골 중에서 유골 외에 모발이나 손톱을 중요시하는 풍속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생시에도 모발이나 손톱에는 갖가지 종교적 터부가 있고, 그것들을 잘라 내버리는 것은 종교적 의례와 연결되기도 한다. 잘린 모발이나 손톱은 그대로 버려서는 안 되고, 신묘, 묘지, 나무 아래 등에 숨겨 묻기도 하였다. 이처럼 미얀마에서도 부처님의 머리칼을 봉안한 발탑(髮塔)의 탄생 배경에는 신앙적 의미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쉐산도 불탑은 4방으로 출입문이 있는 외벽이 있으며, 5층의 기단은 정사각형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체감되어 있다. 기단 위에는 8각의 탑신 받침이 있으며, 원통형의 탑신 위에는 황금색의 티(hti)가 있는데, 이것은 1975년 바간의 대지진때 훼손된 것을 근래에 복원한 것이다.

2) 부파야 불탑

아에아와디(Ayeyarwady) 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파야 불탑(사진2)은 우리나라의 석종형 불탑을 연상케 한다. 호리병이라는 의미의 부(bu)에서 유래한 이 탑은 9세기 이전에 세워졌으며, 조성된 사연은 다음과 같다.

타모다렛이라는 미얀마족의 최초 왕이 이곳 바간에 도시를 건설할 때, 여기에는 5가지의 난적이 있었다. 5가지의 난적은 호랑이와 뱀과 4가지의 동물들이었는데, 수세미와 호랑이, 뱀, 다람쥐, 거대한 새들이 그것이었다.

당굴식물인 수세미는 번식력이 너무나 강하여 자르면 자를수록 퍼져나가 온 도시를 뒤덮을 정도였고, 맹수인 호랑이와 뱀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였으며, 다람쥐는 모든 곡식을 차지하였다. 또한 큰 새는 날아다니는 거대한 공룡처럼 깃털 하나를 5명의 장정이 간신히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 때 쉐의 왕족 출신인 16살 퓨사티(Pyusawhti)가 바간에 와서 신궁으로 불리는 활로서 5가지의 난적을 모두 물리쳤다. 가장 힘든 싸움 이었던 거대한 새를 죽인 후 4,320명이 12년 동안 새의 고기만을 먹고 살 수 있었다고 전한다.

훗날 왕이 된 퓨사티는 5가지 난적을 물리친 곳마다 불탑을 세웠는데, 수세미 넝쿨을 물리친 곳에는 수세미 모양의 탑을 조성하였으며, 이 수세미 모양은 오늘날 호리병을 닮아 '부파야'라고 부른다.

이처럼 과거 미얀마인들은 경전에 수 없이 실려진 불탑조성의 공덕을 얻기 위해 기회만 주어진다면 불탑을 조성하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불설오백유동경(佛說五百幼童經)에 의하면, 500명의 어린이들이 강변에서 모래로 탑 쌓기 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내린 큰 비로 인하여 모두 익사하고 말았다. 마치 진도 앞바다 세월호의 참사처럼, 자식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부모들을 위하여 부처님께서는 위로의 설법을 하셨다. 그것은 비록 장난이었지만 탑을 조성한 공덕으로 아이들은 모두 도솔천에 태어나 미륵불을 친견하고 득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모두가 득도하였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마음을 환희심으로 전환 할 수 있었다.

쉐산도 불탑-미얀마 불탑의 전형 모래탑 쌓다 죽은 아이들 도솔천에 보기 드문 5각형 기단의 담바야지카 골든락 일생 3번 참배로 소원성취 '탑' 지지하는 바위는 부석' 주장도

의 죽음을 슬퍼하는 부모들을 위하여 부처님께서는 위로의 설법을 하셨다. 그것은 비록 장난이었지만 탑을 조성한 공덕으로 아이들은 모두 도솔천에 태어나 미륵불을 친견하고 득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모두가 득도하였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마음을 환희심으로 전환 할 수 있었다.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이 비록 장난으로 탑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공덕으로 인해 도솔천에 태어난다고 하여 건탑의 공덕을 강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퓨사티 왕 역시 부파야 불탑을 조성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담바야지카 불탑

모든 불교국가에서는 불탑을 조성하고 예경하는 불탑신앙이 있었으며, 조형적인 측면에서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양식적인 면이나 형식적인 면에서 많은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바간의 담바야지카(Dhammayajika)불탑(사진3)은 조형적인 개성이 뛰어나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불탑은 기단의 모습이 4각, 8각, 원형 등이 일반적인 구조이지만 5각형의 기단구조(사진4)는 담바야지카 불탑 외에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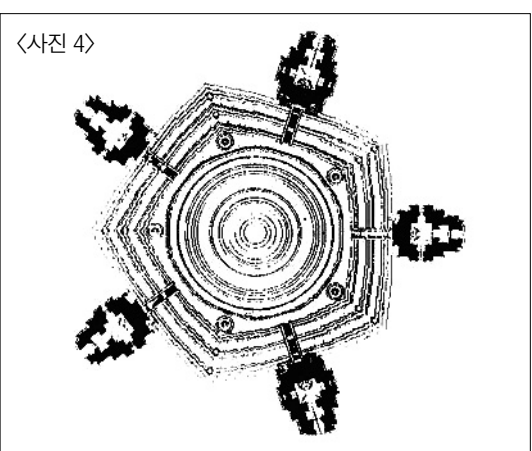
기록에 의하면 나라파티시투(Narapatitsithu) 왕



'황금의 부처님 머리카락'이라는 뜻의 쉐산도 불탑.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5각형 기단구조의 담바야지카 불탑은 조형적인 개성이 뛰어나다.



담바야지카 불탑의 평면도

이 1197년에 야자나무 사이로 성스러운 안개가 기둥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이곳에 '진리가 담긴 장소'라는 의미의 담바야지카 불탑을 조성하였다고 전한다.

오늘날에는 불탑 입구에 있는 대형 사진 한 장이 참배객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야간에 조명을 밝히고 불탑 전경을 찍은 사진인데, 탑의 한 구석에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 있는 신비한 사진이다. 이곳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사진속의 주인공은 '담마'라는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이다. '담마'는 탑이 조성되기 전에 이곳에 살던 사람인데, 왕이 탑을 조성하려고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지만 그는 끝까지 버티던 사람으로 죽어서도 이곳에 다시 돌아와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탑의 이름도 '담마가 사는 장소'라



아에아와디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파야 불탑은 우리나라의 석종형 불탑을 연상케 한다.



산 정상 절벽에 우리나라 설악산의 흔들바위처럼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황금바위 불탑은 미얀마인들에게는 일생에 3번만 참배하면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어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는 의미로 담바야지카라고 전해지고 있다.

4) 골든락 불탑

미얀마의 3대 성지로 꼽히는 황금바위(골든락) 불탑(사진5)은 미얀마의 남쪽도시 짜이티오(kyaiktio)에 있다. 산 정상 절벽에 우리나라 설악산의 흔들바위처럼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황금바위 불탑은 미얀마인들에게는 일생에 3번만 참배하면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어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둘레가 24m, 높이가 8m 되는 이 바위가 밑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위 위에 조성된 불탑의 영험 때문이라고 모두가 믿고 있다. 참배객들은 끊임없이 이 바위에다 금박을 공양하며, 탑을 예경하

고 공덕을 빌고 있다.

얼마 전 일본의 한 방송사의 기자들이 바위 밑으로 실을 통과시켜 이 바위가 공중에 떠있는 부석이라고 주장하여 세간의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마치 우리나라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 옆에 있는 부석의 전설과도 같이...

다음 호에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왓'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학자에 따라 앙코르왓은 일반 사원 건축물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불탑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와 조성의 불가사의한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글·우인보

Advertisement for Buddhist products including sutras, sutra sets, and sutra boxes. It features various items like '경전사경' (Sutra Sets), '한지백팔사경 5종' (5 Types of Hanji Sutras), and '영가옷' (Sutra Boxes). Each item is accompanied by an image and its price. The advertisemen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Dongjinhwa and Buddha Shopping.